

##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 The Construction of Marriage Support Program for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崔 惠 卿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Hye-Kyong, Choi*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盧 致 英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h. D. Candidate : Chi-Young, Noh*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 朴 義 順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h. D. Candidate : Eui-Soon, Park*

본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부부간의 부적응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인의 성장 및 부부간 상호이해증진과 공동체의식향상을 통해 부부 자체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서 한국 사회의 위기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한후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도움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방법은 실제경험을 함께 나누므로써 상호교육효과를 이룰 수 있는 소규모집단(약 3~5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중산층의 결혼초기(결혼 5년 이내) 부부들로 하였다.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애정 증진,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 각자의 이해차이와 문제 접근 및 해결방식의 차이 지각, 부부간의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부부의 상호교류 방식을 파악한 후 수정해보며, 그리고 부부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조연구평가를 통해 끊임없는 부부간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 I. 머리말 : 부부교육의 필요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온갖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제반 생활영역에 걸쳐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인들은 건강한 결혼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족병리나 가족해체의

현상이 계속 증가하므로 가족생활의 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 부부간 상호이해와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통해 부부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구성되었다.

결혼은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이다. 결혼이 또한 현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애정 및 친밀감 (Broderick & O'Leary, 1986), 공평성 (Steil & Turetsky, 1987), 갈등이나 문제해결 전략의 효율성 (김은정, 1992), 배우자의 정서적, 도구적 지지정도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등이 개인의 수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인수, 유영주, 1986; 최규련, 1988; 제갈 정, 1993; 박민자, 1992; Steil & Turetsky, 1987).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결혼제도 자체의 안정성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이혼 실태를 분석해보면, 1980년대 이후 이혼이 급증해서 1975년에는 1000명당 0.66명이 이혼하였던 것이 1985년에는 1.84명, 1990년에는 2.11명으로, 1980년대 이후 이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94). 결혼의 해체는 특히 결혼 초기에 현저해서, 1978년에서 1986년 사이에 이혼한 부부의 거의 반 수 정도가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1987), 1989년 한 해 동안에도 5년 미만의 이혼율이 36%에 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1991). 연령별 이혼추이를 보면, 1991년 한 해 동안 20대의 이혼율이 38%로서 이전 해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93). 이는 특히 결혼초기에 결혼이 극히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동원 (1983)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적응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1-3년 사이라고 한다. 결혼초기는 서로 성장배경이 다른 두 성인이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조정과 협력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반면 가장 갈등의 잠재성이 높은 시기라 하겠다. 또한 계층별로 볼때 1980년 당시에는 중졸 이하의 이혼율이 65%인 것과 비교해 볼때, 1984년에는 고졸 이상의 이혼율이 48%로서 점차 이혼도 고학력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85).

이와같이 결혼적용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결혼생활을 지도할 지침이나 실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I에서 보듯이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부교육 프로그램들로는 M.E. (Marriage Encounter), 부부성장 (Marriage Enrichment) 프로그램, YMCA의 결혼강좌나 가정상담 선교원의 새생활 가정 세미나, 서울시 가정 상담소의 가족대화회 방등이 있다 (오윤자, 1992). 이들 프로그램들은 가족문제를 예방해준다는 점에서 그 공헌도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외국의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우리나라 부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조직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오윤자, 1992), 가족발달주기나 계층에 따른 결혼의 의미와 부부들의 요구를 차별화하지 못하므로써 내용이 피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결혼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부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부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중산층의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II. 이론적 틀

### 1.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절차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과학성, 조직성, 실용성, 대중성 등이 강조된다 (Guerny, Guerny & Cooney, 1985; Mace, 1983; 김혜석, 1990; 오윤자, 1992). 학자 및 교육자들의 제언을 고려하여 본 부부교육프로그램은 그림 1에

제시된 단계들을 거쳐 구성되었다. 우선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부부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기여할만한 것인가 하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였다. 즉 선행이론과 연구, 요구도 조사 등의 과학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 대상이 한국사회의 위기집단으로서 교육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규명된 교육대상

자와 중재변수들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목표에 따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교육집단의 크기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르면서 가능한 실제문제나 생활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실험상황을 통한 경험재현,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 1. 국내 부부 교육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실시자	목 적	내 용	특징
주말부부 프로그램	ME 본부	상호 감정 표현과 이해를 통해서 부부간의 하나됨을 증진시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후, 신뢰로운 자아를 찾고,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알며 결혼과 영적인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종교적 의식에 의한 새로 태어난 결혼을 선포	I-We-God-World 개념이 연결되어 있음
부부성장 프로그램	성장상담 연구소	부부관계 향상과 친밀감 증진	관계개념을 제시하고 leader 부부의 관계 모델링, 참가 부부들 관계에 그 개념을 적용	관계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부부가 교육 담당자라는 점
결혼강좌	YMCA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선택을 통해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성숙한 사회인이 됨	민주적인 결혼관, 결혼과 성, 일과 결혼, 낭만적인 사랑과 왜곡된 결혼, 이중적인 성문화 등의 주제하에 만남과 결혼의 의미, 성숙한 결혼, 결혼과 인간관계등을 생각해 봄	강의와 주제별 소규모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혼관 확립에 도움을 줌
새생활 가정 세미나	가정상담 선교원	참다운 결혼관, 새로운 부부관을 심어주고 부부간에 잃었던 사랑을 되찾음	결혼의 현실과 사랑에 대한 강의를 통해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므로써 부부관계 반성하며 하나님안에서 연합된 부부의 의미설계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 재정립
가족대화의 밤	서울시 가정상담소	대화기술특득을 통해 부부관계 분석하고 대화를 증진시킴	성격유형별 소집단 토의와 부부대화 역할극을 통한 대화훈련, 오락을 통한 감정표출, TA이론을 통한 부부대화문제 토의와 분석, 기본가족가치관에 대한 강의	성격이론과 교류분석이론을 사용하여 부부간의 대화 증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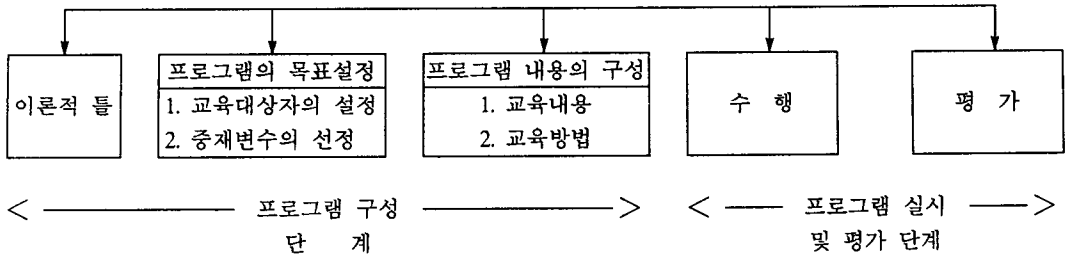


그림 1. 부부교육 프로그램 구성절차.

2. 성공적인 결혼

많은 학자들이 결혼은 배우자간의 호혜성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부부가 호혜의 불균형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주장한다(Scanzoni & Scanzoni, 1988). 부부간의 호혜성은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고루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규범에 의해서 성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결혼제도안에 통합되어 있다. 즉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사랑의 보상이며 결혼을 유지시켜주는 기제는 사랑이다. 또한 사랑의 상징으로 성이 중요시 되고 성은 결혼내에서만 허용되므로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극히 배타적이 된다. 따라서 부부간에 사랑의 호혜성과 배타성이 위배될때 부부는 결혼의 유지에 의문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결혼 및 가족치료에서는 부부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을 부부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하며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Roberts, 1992). 특히 정서적 측면의 강조는 중산층의 결혼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다(최규련, 1988 ; 이인수, 유명주, 1986).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부부갈등의 근본 원인인 성차이다. 즉, 남자와 여자는 성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화의 결과 결혼 실체를 서로 다르게 지각하게 되고 결혼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가 사랑을 포함한 인간관계의 정서적 측면을 여성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게 됨에 따라 여성은 사랑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사랑을 표현하는 전문인으로서 사회화되는 반면, 남성은 그에 대해 거부하고 정서적인 욕구를 숨기도록

사회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ncian,1986). 따라서 남편은 결혼에 대해 도구적 도움이나 중립적인 사실 표현, sex를 기대하며, 부인은 정서적이고 자신의 감정이 나타나는 느낌이나 사고를 표현하고 공감하는 동료에 관계를 기대하게 된다(Rubin, 1984 ; Bernard, 1972).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인지가 다른 두 남녀는 결혼초기에 호혜성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인지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 현실을 배우자에게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므로써, 결국 어느쪽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부부의 불만이 잠재적으로 남아 결혼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혼생활에서 정서적인 욕구의 불만과 부부간 성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결혼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이혼사유를 통해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가 1970년에 64.5%로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혼사유였고, 1989년에는 83%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1 ; 김정옥, 1993). 또한 애정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도 증가추세이어서, 배우자의 부정 행위나 유기, 학대 등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 이혼률이 완만히 감소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중산층 부부들의 애정 및 성격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엄신자, 1988 ; 한겨레신문, 1994 ; 동아일보, 1986 ; 동아일보, 1994).

그러므로 성공적인 결혼에서는 부부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쌍방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갈등해결자세와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즉 결혼은 자기 방식으로 상대방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으로서, 한 사람만의 행동변화보다는 상대방에 영향을 미쳐 두 사람이 함께 변화를 이끄는 상호 호혜적인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성공적인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과 함께 인지적 측면도 고려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므로써 이성적 해결을 유도해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 김혜석(1990)의 교육내용 요구도 수준 (4점 척도의 평균값, N=200명)

교육 내용	요구 수준 (M)	순위
성격의 조화여부검토	3.570	1
의사소통기술향상	3.510	2
동반자의식및 친밀감증진	3.433	3
자녀출산 및 양육의 지식과 기술형성	3.408	4
실제적인 기대형성	3.377	5
건강상태점검	3.372	6
건강한 자아상 확립	3.358	7
바람직한 결혼관 정립	3.354	8
건설적인 갈등해결기술향상	3.269	9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형성	3.228	10
양가식구와의 좋은 관계형성	3.153	11
책임 및 역할기대의 확인과 적응	3.150	12
가정경제관리의 지식과 기술형성	3.146	13
성교육의 실시	3.122	14
가정배경및 성장배경차이 이해	3.103	15
의미있는 혼수약혼결혼예식등의 계획	3.102	16
성적태도이해 및 성적 적응	3.079	17
여가활동개발의 필요성 인식	2.997	18
맞벌이와 가사분담 의논	2.963	19
전통적인 성역할수준준비	2.799	20
종교문제의 조화여부	2.708	21
의식주문제의논	2.614	22

### 3. 요구도 조사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의 증진과 결혼생활과 갈등해결에 대한 인지적 차이의 이해가 중산층의 결혼초기 부부들에게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한 요구도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혜석(1990)이 20, 30대의 기혼자와 미혼자를 대상으로하여 실시한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보면, 성격, 성장환경, 종교나 결혼관 등 가치관의 조화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친밀감, 동반자 의식, 성의 조화등의 애정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본 프로그램은 요구도 조사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부부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스트레스의 정도를 중산층의 결혼초기 부부 20쌍을 면접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격적 조화가 가장 큰 갈등요소로 나타났고, 애정이나 부부간 대화문제,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차이, 경제적 문제나 가족간의 조화 등도 보편적인 갈등요소로 나타났다(표 3).

김혜석의 요구도 조사와 본프로그램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때 부부관계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는 부부간의 적응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론적 틀과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척도구성상 필요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절차는 이 예비조사 과정중에 파악되었다.

### III.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본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앞으로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를 향상, 성장시키는데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성장, 부부간 상호 이해와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통해 부부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교육대상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선정

본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결혼초기(결혼한지 약

표 3. 본 프로그램(1993)의 교육내용 조사  
(부부갈등 빈도 및 정도 : 4점척도의 평균값, N=20쌍)

교육 내용	갈등빈도 (M)	갈등정도 (M)
부부간 성격차이	1.728	1.747
배우자의 부모와의 조화	1.657	1.735
경제적 문제	1.633	1.793
가사분담문제	1.615	1.602
늦은 귀가시간/외박	1.609	1.576
부부간 대화문제	1.556	1.620
가치관/취미차이	1.467	1.485
음주문제	1.430	1.503
자녀 양육 및 교육	1.366	1.311
배우자 형제와의 문제	1.314	1.383
직장문제	1.313	1.171
습관/외모 문제	1.307	1.267
애정/성생활 문제	1.281	1.410
친부모와의 문제	1.236	1.259
동서와의 문제	1.171	1.275
친형제와의 문제	1.163	1.311
친구와의 문제	1.156	1.159
종교문제	1.140	1.196
신체/정신건강문제	1.106	1.171
폭력문제	1.067	1.139
외도	1.061	1.147
혼수문제	1.045	1.080

5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이태영, 1987; 이동원, 1983)은 결혼초기의 부부들이 결혼갈등과 해체를 경험하기 쉬운 취약집단으로서, 결혼생활 적응을 위한 지침이나 안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의 초기에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Mace(1983)는 결혼전, 결혼 첫 1년간, 중년기 및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할때 결혼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는 예비부부들이 기혼자들보다 더 효율적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비부부들은 결혼의 이상이나 낭만적인 사랑에 최고조로 달해 있기 때문에 결혼이후 생기는 어려움을 미리 배우는데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충분히 동기화되어 교육내용에서 제기되는 주제에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으려면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결혼초에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이 좋은 나쁜든 어느 방향으로든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 시기는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2. 증재변수의 선정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부간의 상호호혜성을 유지하고 적절히 부부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부부간의 애정을 견고히 하고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남편과 아내간의 성차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부부의 상호욕구충족을 위해 상호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사랑, 일반적인 결혼생활, 문제접근 및 해결 방식 등에 대한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원만한 상호교류를 유도하도록 교육적인 증재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 IV. 프로그램내용의 구성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춰 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 교육방법

프로그램은 부부를 단위로 한다. 부부간의 개인차와 성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보다는 공동의 참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부부들은 소규모로 집단(약 3~5쌍)을 이루어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한 태도,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참여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등 상호적인 교육을 가져온다. 소규모 집단교육은 대규모 교육에 비해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으로 인해 행동변화와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이 방법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특성

및 문제가 유사하므로 support group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교육을 마친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과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지속되는 이점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privacy를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사람들의 조언을 받거나 다른 결혼을 관찰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소규모집단교육은 부부간의 privacy를 비교적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일방적인 정당화나 죄의식을 갖지 않고 다른 시각을 지닌 부부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객관화시켜보며 같은 문제에 대한 관점차를 공감하는 기회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

## 2.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매주 1회씩, 총 4주에 걸쳐서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 1단계 : 우리 부부의 사랑을 확인합시다

1) 목표 : 부부의 사랑의 실체를 파악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2) 내용 : 결혼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깨우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집단토론을 한다. 이는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토론으로 유도되고 각 부부는 자신의 사랑의 실체를 평가하고 배우자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한편 사랑의 표현성에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랑의 측정도구는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Sternberg의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책임감(commitment)의 3차원은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의 의미에도 적절하고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척도들을 분석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설정하였다. 완성된 문항들은 표준화된 척도라기 보다는 교육자의 분석과 판단에 비교적 의존하는 편이다.

3) 과제제시 : 부부간에 만족하는점과 불만족하는점을 적어온다.

### 2단계 : 나와 우리 부부를 알시다.

1) 목표 :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지각과 문제해결방법의 차이를 깨닫고 조정한다.

2) 내용 : 부부간의 애정을 확인한 후에 부부간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성에 따른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과 문제해결방법에서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는 상호비난을 가져올 염려도 있지만, 각 부부는 다른 부부와의 비교를 통해 부부단위내에서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대사회에서의 본질적인 사회화에 의한 성차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배우자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고 부부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자세를 갖게된다.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간의 지각차를 보기 위해서는 Locke & Wallace의 척도에 바탕을 두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부부각자의 문제해결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대처(coping),갈등해결행동 등의 개념을 통합하여 자체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과제제시 : 서로 바꾸기 원하는 행동목록을 작성해온다.

### 3단계 : 여보 ! 얘기좀 합시다.

1) 목표 : 자신과 배우자의 자아를 파악하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진단한다.

2) 내용 : 부부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부의 상호교류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의 자아와 부부나 대인관계패턴을 살펴보고 부부간의 보다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을 찾아본다.

이를위해 상호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아가 타인에 대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설명해주므로써 대인관계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되었다.

3) 과제제시 : 가장 바꾸기 원하는 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얘기해온다.

### 4단계 : 우리의 결혼을 완성합시다.

1) 목표 : 각 부부의 문제해결과 평가를 지도한다.

2) 내용 : 3단계까지의 교육을 통해서 파악한 결혼 issue를 각 부부가 들고와 다른 부부들 앞에서

토론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부부들의 조언과 경험을 교류하므로써 각 부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뿐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지지와 조언까지 얻는 이점이 있다.

3) 과제제시 : 가정에서 부부가 단위가 되어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한다.

## V. 맺 음 말

본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결혼생활의 부적응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적합한 중산층의 결혼초기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성장 및 부부간 상호이해증진과 공동체의식 향상을 통해 부부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부부간의 상호호혜성을 유지하고 적절히 부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들간의 연계성을 갖추어서 통합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대상이나 중재변수로 볼때 본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위기의 예방적 차원에서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재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예방적 교육프로그램, 문제 위기에 당면한 사람들에게 초기 진단이나 효과적인 처치로 현재의 문제를 줄여주는 예방적 교육프로그램, 이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기능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Caplan, 1964; Renick, Blumberg, & Markman, 1992 재인용). 본 프로그램은 전자의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에 계속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을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바라보고 개인 내부에 잠재해있는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즉 개인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의 정서와 사고를 전환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부부단위의 문제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부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더 많은 외부적 도움을 제공하는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에서 다시 교육적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두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다. 우선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는 단순한 행동기술을 습득시키기 보다는 앞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자원을 강화하고 인지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에 일반 부부들 중에서 자생능력이 있는 부부들과 외부의 도움을 강력히 필요로 하는 부부를 구분하는 진단적 효과도 파생되어 차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대로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부부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으며, 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여하므로써 현재 우리나라 결혼초기 부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요구나 기대를 수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진다.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근거해서 적합하게 구성하려고 애썼지만,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미흡한 점은 프로그램 평가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91). 인구동태통계. 경제기획원 통계국.
- 2) 경향신문(1987). 30대 남, 20대 여 이혼급증. 7월.
- 3) 김종술(1992). 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4)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 해결 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5) 김정옥(1993). 이혼 원인의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서울: 하우.
- 6)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7) 김혜석(1990). 결혼 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8) 동아일보(1994). 30대 부부 성격차 이혼 늘고 있다. 2월.
  - 9) 동아일보(1993). 불행한 결혼보다 파경선택. 11월.
  - 10) 동아일보(1985). 결혼후 5년을 조심하라. 7월.
  - 11) 동아일보(1986). 작년 이혼 68,948건. 결혼 5년 이내, 고학력 많아. 7월.
  - 12)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 여성한국 사회 연구소.
  - 13)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14) 스키다 미네야스(1988). 교류분석. 김현주(역). 서울 : 민지사.
  - 15) 엄신자(1988). 내담자를 통해서 본 이혼의 遠因과 近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16) 오윤자 (1992).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II) - 부부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209-229.
  - 17) 유영주 · 오윤자(1990).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술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49-68.
  - 18) 이기훈(1989). 교류분석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
  - 19) 이동원(1983).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의 부부관계. 변화되어가는 부부관계. 박금순(편). 서울 : 한국부인회 총본부.
  - 20) 이연숙 · 이순형 · 유가효 ·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21) 이영실(1990). 부부갈등과 성생활. 서울 : 범문사.
  - 22) 이인수 · 유 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1-14.
  - 23)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24)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 25) 장필화(1992).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되기. 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8, 42-57.
  - 26) 제갈 정(1993). 도시 중산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27) 최규련(1988).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 28) 한겨레신문(1994). 30대 젊은 부부의 애정, 성격 갈등 많다. 2월.
  - 29) Bernard, J.(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rk : World.
  - 30) Broderick, J.E. & O'Leary, K.D.(1986). Contributions of affect, attitudes, and behavior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14-517.
  - 31) Cancian, F.M.(1986). Gender politics : Love and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A.S. Skolnick & Skolnick, J.H.(Eds.).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32) Cate, R.M. & Llyod, S.A.(1992). *Courtship*. Newbury Park : Sage.
  - 33) Clinebell, H.(1972). 성장그룹. 이종현(역).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 34) Clinebell, H.(1981). 현대 성장 상담 요법. 이종현(역).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 35) Clinebell, H.(1975). 부부성장과정. 이종현(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 36) Dusay, J.M.(1977). *Egogarms*. NY : Harper & Row.
  - 37) Ford, E.E.(1983). *Choosing to love*. Brandt Publishing.
  - 38) Greenberg, L.S. & Johnson, S.M.(1986). Affect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1-10.
  - 39) Guerney, Jr., B. G., Guerney, L., & Cooney, T. (1985). Marital and famil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programs. In L. L'Abate(Ed.).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2). Illinois : The Doorsey Press.
  - 40) Hendrick, S.S. & Hendrick, C(1992). *Romantic Love*. Newbury Park : Sage.
  - 41) Mace, D.R.(1983). The marriage enrichment movement. In D.R. Mace(Ed.). *Prevention in Family Services*. Newbury Park : Sage.
  - 42) Renick, M.J., Blumberg, S.L. & Markman, H.J. (1992). The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

- ment program(PREP) : An empirically 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couples. *Family Relations* 41, 141-147.
- 43) Roberts, T.W.(1992). Sexual attraction and romantic love : Forgotten variables in marit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4), 357-364.
- 44) Rollins, B.C. & Cannon, E.L.(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 Family* 36, 271-282.
- 45) Rubin, L.(1984). *Intimate strangers :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 Harper & Row.
- 46) Sabourin, S., Laporte, L. & Wright, J.(1990). Problem solving self-appraisal and coping effort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16(1), 89-97.
- 47) Satir, V.(1972). *사람만들기*. 성민선, 송 준(역). 서울 : 홍익제.
- 48) Scanzoni, L.D. & Scanzoni, J.(1988). *Men, women, and change : A sociology of marriage*. New York : McGraw-Hill.
- 49) Steil, J.M. & Turetsky, B.A.(1987). Is equal better ?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equality and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In S. Oskamp (ed.). *Family Processes and Problems*. Newbury Park : Sage.
- 50) Sternberg, R.J.(1986). A triangular theory &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51) Sternberg, R.J. & Barnes, M.L.(1988). *The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